

##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Parenting of Young Children by 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  
A Qualitative Study\*

김미정(Mi Jung Kim)<sup>1)</sup>

정계숙(Kai Sook Chung)<sup>2)</sup>

### ABSTRACT

To examine the parenting experiences of 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seven parents(a father, a grandmother and five mothers) were interviewed about their parenting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It was found that parents from North Korea felt a safe existence including safety from hunger in South Korea but they were afraid of the many cars and unfamiliar diseases in South Korea. They had many difficulties with unfamiliar child rearing practices and parental roles in South Korea. Their confusion about good parenting was compounded by psychological and physical after-effects of the escape from their native country. They found help in adjusting to parenting in South Korea by such social networks as child care centers.

**Key Words** : 새터민 부모(North Korean parents in South Korea), 양육(parenting), 부모 역할 전이 (parent's role transition).

### I. 서론

통일부가 최근 국회 남북평화특별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말까지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는 총 1054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59%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입국 탈북자 수는 총 8741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2007년에는 탈북자 1만 명 시대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세계일보, 2006년 9월 4일).

\* 이 논문은 2006년 부산대학교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sup>1)</sup> 부산대학교 영유아보육연구소 박사 후 연수 연구원

<sup>2)</sup> 부산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Mi Jung Kim,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609-755, Korea  
E-mail : youcu2@hanmail.net

탈북은 남한과 같은 민족인 북한주민이 서로 다른 문화와 사회체제를 가진 남한에서 문화적 과도기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매우 독특한 이주의 한 형태이다. 사회 문화가 전혀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것에 대해 Kuprindk(1984)은 이주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심리적 고통(한성열, 2000 재인용)이 된다고 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소수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새터민들(독고순, 2000) 역시 북한과 상이한 남한의 사회, 경제, 문화 속에서 적응의 어려움(길은배, 2003; 이금순, 2003)을 호소하고 있다. 이를 Bronfenbrenner(1986)의 관점에서 보면 탈북은 생존기반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새터민들은 미시체계 뿐 아니라 거시체계인 국가의 이념 및 문화적, 법적, 제도적인 환경의 모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을 둘러싼 총체적인 체계가 변화된 것이기에 적응의 어려움이 수반될 수 있다.

새터민 중 매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연령대인 20대부터 30대 청장년층은(통일부, 2004) 남한에서 결혼하여 자녀를 처음 양육하거나 자녀가 영유아기에 탈북 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영희(2005)는 새터민 부모의 부부관계가 1~2년의 정착초기보다 그 이후 적응기에 들어서면서 갈등이 증폭됨을 보고했는데, 이는 북한의 가부장적 문화와 남한의 부부평등문화의 차이를 경험하면서 그 동안 잠재되어 있던 의식 등이 표출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가족은 최초의 문화전달 매개체(Meléndez, 2005)이고, 부모는 유아의 중요한 미시적 환경이면서 유아의 사회화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Kostelnik, Laura, Whiren & Soderman, 1998)이다. 따라서 부모의 일련의 행위와 부모간 상호작용의 연속인 양육(Brookes, 2001)은 그들이 속한 문화의 전반적인 신념, 태도 및 가치관이 반영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아기는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지식을 현저히 발달시키는 시기(김수영 외, 1996)이며,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이현섭 · 고인숙 · 김영희, 2006)이자 청소년기에 사용되는 사회화 원리의 85%를 습득하게 되는 시기(Bigelow, Tesson & Lewko, 1996)이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이 겪는 사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한 심리사회적 가치관과 신념의 혼란, 그리고 가족 간 갈등이 자녀양육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발달적으로 중요한 시기인 유아의 건강한 심리, 사회적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새터민 부모의 자녀 양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들의 남한사회에 대한 적응도(이기영, 2000)이다. 그러나 남한사회가 갖고 있는 새터민에 대한 태도 즉, 북한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이 이들의 적응을 가로막는 큰 요인(윤병익, 1997; 이금순, 1997)이 되고 있다.

생태학적인 접근에서는 개인의 환경에 대한 적응을 개인과 환경의 단선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박모란, 2002). 즉, 적응을 위해서는 개인이 처해 있는 다차원적인 환경들 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터민 부모의 적응 및 그들의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연구들(이기춘, 2001; 이수희, 2004; 장혜경 · 김영란, 2000; 홍주은, 2003)은 남한주민의 인식이나 태도 변화를 위한 접근보다는 새터민 가족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부적응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이 남한사회에 동화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및 정책적 지원들을 제안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경환(2002)은 새터민 부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토대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

에 익숙해지는 공동체 의식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새터민 부모만 남한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사회와 새터민이 함께 적응하는 것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이 남한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지금까지 체험하고 경험한 그들의 문화를 버리고 남한사회의 문화를 순조롭게 받아들일도록 요구하는 단선적인 방법이 아니라, 새터민 부모가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현재 어떠한 양육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함으로써 서로의 '다름'을 인식하고 서로 이해하는 상호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경험을 들여다보는 것은 탈북으로 야기된 거시 환경에서부터 미시환경까지의 총체적인 변화가 새터민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이해 및 양육신념과 행동에 어떤 고민과 갈등을 안겨주고 어떤 해결 방안을 가지게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할 것이다. 또한 남한 주민과 새터민 부모가 서로의 다른 사회 및 문화, 편이하게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서로 다른 신념과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또는 비슷한 양육을 하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적응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들과 나란히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의 문화적 주체로서 우리 모두를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이에 인간의 발달과 환경에의 적응을 탈맥락이 아닌 맥락 내에서 바라보기를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에 따라 새터민 부모의 남한에서의 양육의 모습들을 그들의 문화적 특성과 경험의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는 그들의 구체적인 일상생활의 내면적 의미를 심층적으

로 이해하는 질적 연구방법(Troyna, 1991)으로 가능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담을 통해 새터민 부모들이 새로운 양육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으며 그 속에서 겪는 양육의 어려움과 남한사회에서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들은 어떠한지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에 따라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새터민 부모의 남한에서의 자녀 양육경험은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새터민 부모의 유아기 자녀양육 경험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임을 고려하여, Marshall(1987)이 제안한 바와 같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연구하는데 강점을 지닌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인 심층면담 방법을 적용하였다. 심층면담 대상인 연구 참여자, 자료 수집 및 자료 분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남한의 B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양육자가 모두 탈북한 7명의 북한 사람들로서 어머니 5명, 아버지와 외할머니가 각각 1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이었고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경우이었다.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가 소수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 참여자를 표집할 수 없었으며, 신분보장을 위한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참여자의 이름은 가명을 사용하였다.

연구 참여자 7명 중 아버지 이봉규씨는 이순영

〈표 1〉 연구참여자의 인적사항

사례	이름	나이	직업	자녀연령	중국거주 기간	남한거주 기간	결혼유형	배우자 직업	비고
1	이순영	31	무직	영규(아들/만4세) 영남(아들/만1세)	6년	3년 3개월	중국에서 결혼	무직 (36세)	
2	이봉규	36	무직	"	6년	3년 3개월	"	무직	이순영씨 남편
3	김혜진	39	무직	경호(아들/만7세)	×	3년 7개월	북한에서 결혼	이혼	
4	김수희	31	무직	미영(딸/만6세) 건영(아들/만4세)	3년	5년 3개월	중국에서 결혼	회사 (33세)	
5	이정아	42	보험 설계사	보화 (딸/만15세) 영화 (딸/만12세) 동건(아들/만3세)	5년	3년 7개월	북한에서 결혼	무직 (40세)	
6	최영이 (외조모)	58	무직	가희(손녀/만3세)	8개월	3년 3개월	가희의 모(27세)는 남한에서 결혼 후 이혼		
7	이옥희	33	무직	예희(딸/만3세)	×	3년 3개월	남한에서 결혼	자영업 (36세)	

씨 남편으로서 현재 무직이어서 늘 집에 있었으며 외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보고하였다. 면담 시에는 이순영씨와 이봉규씨가 함께 하였다.

최영이씨는 가희의 외할머니로서, 면담을 위한 사전 연락은 가희의 어머니와 했지만, 실제 면담을 위해 집에 갔을 때는 어머니는 매번 다른 방에서 잠을 자고 나오지 않았다. 가희의 양육은 전적으로 외할머니가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희의 외할머니와 면담을 하게 되었다. 가희의 외할머니 보고에 따르면, 가희의 어머니는 현재 이혼한 상태이며, 가희의 양육에는 전혀 개입을 하지 않고 있고, 가희도 자신의 어머니를 “이모” 또는 “아줌마” 등 여러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중 김혜진씨 역시 남편과 남한에서 이혼한 상태이고, 김수희씨와 이옥희씨는 남편이 직장을 가지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정아씨는 남편이 무직으로 가정일을 보고

있었으며 본인은 회사에 다니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 두 명의 자녀를 양육한 경험이 있었고 현재 남한에서도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연구 참여자들의 인적사항은 다음 <표 1>과 같다.

## 2. 자료수집

본 연구를 시작하기 전 연구자들은 탈북주민들을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새터민 지원센터의 담당자를 통해 B지역의 새터민 현황과 실태에 대한 정보를 먼저 접하였다. 그리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를 선정하여 연락을 취한 뒤 연구의 의의를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대해 서면 혹은 구두로 동의를 얻었다. 또한 새터민 부모와의 면담 이전에 연구자들은 북한의 양육과 실정, 탈북에 관련된 문헌고찰과 새터민 지원센터 담당자의 면담을 토대로 면

담 자료를 구성하는 작업을 통해 새터민 부모를 이해하는데 주력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심층면담은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장소인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양육경험은 대체로 연구 참여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는 주제였고, 연구 참여자의 집에서 면담을 한 것은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는데, 연구 참여자의 집은 양육현장으로 그 물리적 환경을 그대로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연구 참여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면에서 도움이 되었다.

심층면담은 연구 참여자의 사정에 따라 2회 내지 3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처음 면담은 라포를 형성하는데 주력하였다. 1회 면담에 평균 1~2시간 정도 소요되었으며, 녹음기 사용의 동의를 구한 후 면담내용을 녹음하였으며, 공식적인 면담이 끝난 후에는 부모들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개인적인 이야기 상황의 친숙감을 주기 위하여 녹음기를 끈 상태에서 이야기 했고 그 내용은 기억했다가 나중에 기록하는 방식을 취했다.

면담은 Spradley(1996)의 발전식 연구 싸이클에 따라 진행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면담의 질문내용을 선정한 후 1차 면담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면 이를 기록하고, 확보된 자료는 즉시 전사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의 면담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싸이클은 면담이 종료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 3. 자료 분석

본 연구는 특수한 사례에서 보편적 현상을 기술하고자 한 질적 연구의 패턴을 따르기 때문에 개인별 새터민 부모의 경험이 모두 동일하지 않

고 독특하다 할지라도 가능한 개인별 새터민 부모의 경험을 단서로 이들의 경험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Colazzi(1978)의 분석방법을 통해 연구 참여자의 개인적인 속성보다는 전체 연구 참여자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내는데 주력하였다.

우선 범주화(coding category)를 하기 위해 자료 수집한 전사본을 반복하여 읽어가면서 그 부분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단어들을 적는 한편, 단어들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제영역을 나누고 이를 다시 범주들을 정하고 이에 따른 주제들을 구분하였다. 이렇게 나누어진 주제에 가장 적절한 사례들을 묶은 뒤 사례들을 읽어가면서 해석해 나갔다.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의 범주와 주제 분류과정, 그리고 해석과정에서 야기되는 오류를 줄이고 주관적인 분류와 해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 참여자가 소속된 새터민 센터의 담당자, 아동학 박사 학위자 1인 및 부모교육 전문가 1인의 협조를 얻어 연구결과의 범주, 주제 및 사례 간 논리적, 실제적 연결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통해 신뢰도를 높였다.

## III. 결과 및 해석

새터민 부모의 심층면담을 중심으로 모아진 자료를 통해 이들의 남한에서의 자녀 양육경험을 세 가지 범주, 즉 새터민 부모는 새로운 자녀 양육환경인 남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으며 양육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 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세 개의 큰 범주에 각각의 주제와 사례를 중심으로 결과 및 그에 따른 해석을 기술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새터민 부모의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범주와 주제

범 주	주 제	사 례
1. 새로운 양육환경 이해하기	여유 있는 생활	① 이제 아이들을 먹고 입히는 건 걱정 안해요. ② 아이들에게 시간 내기가 좋아요.
	“나”라는 존재감	①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②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낯설음이 주는 불안	① 북한보다 자동차와 질병이 너무 많아요. ② 북한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2. 새로운 양육환경에서 겪는 어려움	새로운 역할 수행이 주는 좌절감	① 아이 키우는데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② 사교육도 시켜야 된대요.
	다름이 주는 혼란	① 말이 달라서 힘들어요. ② 내 양육이 잘못됐다고 해요.
	탈북이 주는 아픔	① 남한사람과 잘 안 만나요. ② 북한 사람과도 안 만나요. ③ 몸도 마음도 고달파요.
3.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기	몸에 밴 신념들	① 아이들은 스스로 커야죠. ② 아이들에게엔 교양교육이 중요해요. ③ 애정표현보다는 배로 다스려요.
	새롭게 터득한 신념들	① 남한에서는 공부가 제일 중요해요. ② 남한에서 살려면 이런 태도들이 중요해요. ③ 우리 아이는 한국아이예요.
	적응을 위한 노력	① 어린이집에 의지해요. ② 내 나쁨으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 1. 새로운 양육환경 이해하기

부모가 속한 각 문화와 사회적 환경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양육태도와 목표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오정현, 2005). 이는 부모가 새로운 문화와 환경을 이해한 사항을 자녀양육에 반영하게 되는 것이다. 새터민 부모가 이해하는 남한이라는 자녀양육 환경은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여유 있는 생활을 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느끼도록 하는 반면 새로운 환경이라는 낯설음에 의한 불안도 있는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 1) 여유있는 생활

(1) 이제 아이들을 먹고 입히는 건 걱정 안 해요.

새터민 부모와의 만남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는 한결 같이 이제는 자녀를 굶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의 해결에서 비롯된 만족감에 관한 것이었다. 북한에서는 못 먹고 못 입었지만 남한에서는 안 먹고 안 입는 것으로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가 달랐다. 그들은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입고 먹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일종의 자부심까지 가지고 있었다.

먹는 거 첫째 걱정 안하니가 저희 딸래미 굶길 일이 없거든요...(중략)...저희 신랑이 가끔 가다가 나가 엄마 아빠를 잘 만났으니가 돈을 떠나서 먹는 거에 대해선 걱정 근심 없다고 하거든요.  
(이옥희, 2006, 5, 10)

만약에 북한에서 애가 이것저것 부탁한다면 내 마음이 어떨을까 그것 생각하면 막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요...(중략)...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사주는 거지. 먹을 것도 너 사탕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마라는 거지 없어서 못 사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없어서 못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김수희, 2006, 5, 3)

## (2) 아이들에게 시간 내기가 좋아요

자녀를 제대로 입고 먹일 수 있는 남한이라는 환경은 새터민 부모들에게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까지 주고 있었다. 전업주부인 새터민 어머니는 물론,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이정아씨도 일을 끝낸 저녁시간과 주말에는 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기에 자녀를 더 관찰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이러한 차이는 북한에서 2명의 자녀를 키웠고, 현재 남한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이정아씨가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북에서는 오직 생활전선에만 신경을 쓰는데. 여기는 애들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북한에서는 애를 만날 시간이 없는 거라. 내가 새벽에 나갔다 들어오고 차타고 멀리 나가니까 며칠에 한 번씩 볼 수도 있고 나갔다 들어오면 힘들어서 잠자야 되고 장사하게 되면 그 다음날 장사 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애들이랑 마주 앉아 있을 틈이 전혀 없었는데 한국에는 애들하고 있는 시간도 많고 애들한테 투자할 시간도 많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이정아, 2006, 5, 2)

시간적 여유는 새터민 부모로 하여금 유아기 자녀가 발달하는 모습을 관심 있게 지켜보게 하였다. 새터민 부모들은 영어비디오를 보여주면

어른보다 더 잘 따라하고, 집중하는 현재 자녀 모습은 예전 북한에서 키웠던 아이들에게서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 신기해하고 놀라워하였다.

한번 놀란 것은 애가 비디오를 켜줬는데...(중략)... 영어 발음이 너무 정확 한거라. 어른들이 하는 흉내하고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정확하게 받아들이나. 참 희안하데 애가 집중력이 있드라고요. 아직 어린나이지만 뭔가 좀 있어보이구요. 그전의 애들은 그걸 전혀 못 느꼈죠. 그걸 보면서 여기서 자라니까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북에서는 애들 관찰할 시간조차 없었고 관심 둘 시간이 없었거든요. 배불리 먹어라하는 이런 개념이지...(중략)...한국에 와서 애들한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애들한테 뭐 해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이북하고는 상당히 틀립니다.  
(이정아, 2006, 4, 19)

자녀양육을 위한 남한이라는 환경은 새터민 부모에게 만족감과 자부심을 주는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LeVine(1988)에 따르면, 어느 문화집단을 막론하고 부모는 자녀에 대해 평범하면서도 일반적인 목표 중 첫 번째가 자녀의 건강과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더욱이 유아기 부모 역할 중 유아기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균형 잡힌 영양공급이 중요하다(이현섭 외, 2006)는 점에 비추어, 새터민 부모들은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갖는 가장 기본적인면서 중요한 양육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것에 대해 안도감을 넘어 부모역할에 대한 일종의 자부심까지 느끼고 있었다.

기본적 생활 유지는 새터민 부모가 자녀의 생존이외의 부분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고, 이는 유아기 자녀가 발달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고 발달해 가는 모습을 온전히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은 부모의 큰 기쁨이며, 동시에 북한에서보다도 자녀를 더 잘 키우고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있었다. 따라서 남한에서의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은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의 초점을 생존에 대한 관심에서 발달에 대한 관심으로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 2) “나”라는 존재감

### (1)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은 자녀가 성장하기에 기본적으로 좋은 환경이라고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이 성장했던 북한과 달리 남한은 누군가에게 이끌려 가지 않고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면서 자신만의 삶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자녀가 어릴 때부터 성장하게 된다는 점과 이런 환경을 자녀에게 넘겨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터민 부모들은 만족하고 있었다.

우리 미영이는 최소한 자기가 원하는 대로는 살 것 같아요. 나는 인생 자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른들이나 주변에 의해서나 내가 딱히 뭘 하고 싶다는 걸 못 느꼈어요. 니가 뭘 해야된다하니까 뭘 하는 거고 내가 주체가 아니라 옆에서 이끄는 대로 살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애들한테 복이지 않나. 엄마 아빠는 북한에서 힘들게 살았지만 저 애들한테는 좋은 걸 넘겨줄 수 있어서 좋고 애들한테는 어릴 때부터 힘든데서 자라지 않고 환경이 좋은데서 앞으로 자랄 수 있어서 좋아요.

(김수희, 2006, 5, 19)

### (2) 내 시간을 가질 수 있어요.

남한이라는 환경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새터민 부모인 그들 자신에게도 만족스러운 환경이었다. 그들은 유아기부터 집단에 소속되어 평생 집단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압력을 느끼던 북한의 생활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리고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는 남한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유치원 올라가는 그 순간부터 자유라는 게 없어요. 쉬는 날도 그냥 불려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고. 일요일 날도 쉬질 않고 딱딱질해요. 진짜. 계속 집단속에서 같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지겹고 싫더라고요.

(김수희, 2006, 6, 20)

여기는 좀 편하죠. 거기는 놀고 있으면 솔직히 일하는데 막 데리고 가거든요. 여기는 일 안해도 뭐라는 사람 없고 자유스럽죠. 내가 다문 1시간을 일해도 3000원을 벌수도 있고. 신랑이 일한 만큼 10원이든 10만원이든 별잖아요.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게 우선 좋구요. 작업도 안 해서 좋구요.

(이옥희, 2006, 6, 14)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다. 가장 큰 차이는 북한은 집단주의 원칙에 준거한 통제 조직 사회이며, 그 어느 공산사회의 경우보다 전체주의적 요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남한은 민주주의 사회에 기초한 다원주의 체계로서 개인주의에 입각한 비집단적이고 개방적이며 개인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사회이다(박희정, 1998). 이렇게 대비되는 남북의 사회체제는 새터민 부모로 하여금 그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즉 “나”라는 존재감을 느낄 수 있는 사회로 남한을 인식하게 하였으며, 이러한 환경을 자녀에게 물려 줄 수 있다는 데 만족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부모들은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남한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만 볼 수 있었다. 남한에서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새터민 부모들, 즉 부부가 모두 무직인 이순영씨와 이봉규씨, 남편과 남한에서 이혼을 했으며 무직인 김혜진씨와 이혼한 딸의 자녀를 전담으로 양육하고 있는 무직인 최영이씨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었다. 이수희(2004)는 탈북주민들이 남한사람들과 부

뒤틀려야 남한사회를 전반적으로 인식하게 된다고 하였다. 또한 일반적으로 직업은 생존의 수단이고 인생관의 주된 결정요인이며(Kanter, 1977),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 지에 대한 개념과 그 환경에서 성공하는데 요구되는 특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를 준다(Ogbu, 1981). 따라서 집단주의에 친숙해 있던 새터민 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통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남한 사람과 부딪히는 경험을 함으로써 남한 사회 속에서 가장 친숙한 삶의 원리로 존재하는 개인주의를 느끼게 되고, 이러한 개인주의가 자유를 줌과 동시에 그들 자신과 아이들에게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무직이거나 이혼하여 혼자 사는 새터민 부모가 남한사람과 상호관계 형성이 없다면 남한사회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기 어려우며, 이는 남한이라는 환경을 긍정적으로 이해하는데 한계를 줄 수 있다.

### 3) “낮설음”이 주는 불안

#### (1) 북한보다 자동차와 질병이 너무 많아요.

새터민 부모들의 한결같은 이야기는 북한과 다른 남한의 물리적 환경에 대한 걱정이고 불안이었다. 특히, 남한은 차가 많아 유아기 자녀에게는 위험한 환경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집안에서만 키우거나 집 밖을 나갈 때는 어머니가 동행하고자 하였다.

한국이라는 사회가 애들을 내 보내면 너무 걱정이예요. 여기는 북한하고 달라서 차가 너무 많아서 차에 치일까봐 걱정이고. 이런 걱정들이 항상 많으니까, 내가 동행하지 않으면 잘 안 내보내요. (김수희, 2006, 5, 4)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데 차가 많은 환경은 걱정을 넘어서 일종의 두려움까지 주고 있었다. 이는 손녀가 차 사고를 당한 뒤, 차가 많은 남한

의 환경이 두려워 차가 거의 없는 중국으로 손녀를 보낸 최영이씨의 경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마당에서 놀다가 장사꾼차가 애 있는지 모르고 몰아가지고 차 사고가 났어. 애가 작으니까 안 보였나봐. 북한에는 차가 없지. 겁이 나서 가뒀났어. 그래도 겁이 나서 중국에 데려다 났지. 중국은 차가 없어서 내버려두고 왔지. 거기도 낮서니까 불쌍하데. 그래서 또 데려오고. 근데 여기 온 후부터 1달 동안 밥을 안 먹어. 사람 바뀌지, 환경이 바뀌지 하나. (최영이, 2006, 5, 30)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는 보지 못했던 남한의 많은 희귀질병도 그들에게 늘 걱정과 불안을 주는 요인이었다. 새터민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도 이런 희귀질병을 앓을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으며, 더욱이 김수희씨는 이러한 질병은 북한과 달리 남한의 오염된 환경 때문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으며, 이런 오염된 환경 속에서 어린 자녀를 키운다는 건 부모 자신을 늘 긴장하게 만든다고 호소하였다.

어디 병날까 탈날까 걱정이고 한국에서는 자라다가도 희귀병이 많이 걸리대요. 그런게 겁나더라구요. 조금만 아프면 그런데 걸리지 않나 신경이 자꾸 쓰이고. 북한에는 희귀병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여기는 애들 키우는 게 걱정이 엄청 많아요. (이정아, 2006, 5, 2)

#### (2) 북한에는 이런 일들이 없었어요

TV와 같은 대중매체를 통해 본 남한은 북한에서 보지 못했던 일들도 많은 사회였다. 남한사회의 왕따 현상, 개방된 성문화, 어린 아이들의 가출과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려움, 교사에 대한 부모와 아이들의 태도는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낯선 사회적 현상이었다. 특히, 남한의 개방된 성문화, 교사에게 무례한 아이들의 태도, 아이인지 어른인지 구분하기 힘든 외모 등은 새

터민 부모가 생각하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가치관과 태도들이며, 이를 유아기 자녀가 자라면서 그대로 흡수할까봐 염려하고 있었다.

남한이라는 게 성적으로 상당히 밝아진 나라입니다...(중략)... 텔레비를 보면 남녀가 끌어안고 만지고 입맞춤하고 그러는게 다르거든요. 뒤에서 그런데 신경 써봐라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리가 그런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애들도 성적으로 밝아지면 어떻게 하노. 그런 근심이 있죠. (이봉규, 2006, 4, 21)

우리 북한은 선생님한테는 대들지 못하거든요. 선생님을 억수로 소중히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니거든요. 배울까 걱정이죠...(중략)... 아들(아이들)인지 어른인지 분간하기 엄청 힘들데요. 내가 딸래미 키우는 입장에서. 한국은 아(아이들)들이 어른보다 더 하고 다니니까. 자본주의 사회는 막 나가는 애는 막 나가잖아요. 그런대서 엄청 많이 신경 쓰고 있거든요. 우리 애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이옥희, 2006, 5, 10)

뿐만 아니라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의 아이들로부터 그들의 자녀가 왕따를 당하거나, 공부 때문에 자살을 하거나 또는 성폭행, 낯선 사람에 의한 납치 등을 당하거나 앓을까하는 자녀의 안전에 관련된 불안도 있었다.

여기 애들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대놓고 얘기하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왕따를 시켰다거나 그거는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들이거든요. 북한에서는 그런 거 없었어요. (김수희, 2006, 5, 3)

우리애가 사람을 잘 따르니까 이쁘다 하면 다 따라가요. 항상 겁나는거예요. 북한에서는 애 잇 어버리거나 하는 건 별로 없거든요. 한국은 큰 애들도 자꾸 잇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것이 억수로 신경이 많이 쓰이고 걱정이죠. (이정아, 2006, 5, 2)

박해연(2003)은 환경이란 개인의 주변에서 그 개인에게 작용하는 물리적, 사회적, 심리적, 생물적인 전반적 현상으로 단순히 물리적 조건 자

체보다는 그것이 심리적인 조건으로 전환되어 작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다. 즉, 남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은 그 자체로서 새터민 부모의 양육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들이 이해한 남한의 환경이 새터민 부모에게 어떤 심리적 조건으로 전환되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북한과 다른 남한의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현상은 자녀의 가치관과 태도형성,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안감의 근원이었다.

북한과 다른 남한의 환경이 심리적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북한과 남한의 “다름”이 그들에게는 “낯설음”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낯설음”은 무언가 처음 접하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인간의 보편적인 특성으로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모르는 어색함과 불안감을 동반하게 된다(최병근, 2003). 새터민 부모들에게 있어 많은 차와 질병, 왕따, 개방된 성문화, 성폭행, 교사에 대한 무례한 태도, 자살이라는 것은 북한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면서 또한 낯선 환경이었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 불안을 느끼고 있다. 두 번째는 새터민 부모들은 양육경험이 많지 않은 초년생 부모들이 대부분이었던 점이다. 새터민 부모들은 그들도 낯선 환경인 남한에서 기본적인 가치관 형성과 학습이 시작되는 유아기 자녀를 위한 양육 경험과 방법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으며 이것이 구체적인 불안감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이 낯선 남한사회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자녀양육의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동시에 양육스트레스도 많아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2. 새로운 양육환경에서 겪는 어려움

남한은 새터민 부모들이 성장하지 않았던 새로운 환경이므로, 이 속에서 그들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는 남한에서의 새로운 양육 역할로 인한 좌절감,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주는 혼란, 그리고 탈북이 주는 아픔 때문이었다.

### 1) 새로운 역할 수행이 주는 좌절감

#### (1) 아이 키우는데 해야 할 것들이 많아요.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에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해야 할 것들이 많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자녀를 놀이 장소에 데려가지 않아도 되며 자녀와 함께 놀지 않아도 되었지만, 남한에서는 자녀에게 놀이경험을 주기 위해 데리고 다녀야 했으며 함께 놀아주기도 해야 했다. 그러나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의 지리도 모르고 자율적으로 놀아본 경험이 없어서 제대로 해 줄 수 없음을 호소하였다.

우리 북한에서는 눈이 많이 오니까 그런데(스키장) 일부러 안가도 아빠들이 만들어주는 썰매를 가지고 노는데. 여기는 일부러 그런 뿔 찾아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라도 데려가야 되는데 나도 모르고. 여기 어디에 놀이터도 있다고 하던데. 난 길을 몰라. 한 번도 못 데려갔어.

(김혜진, 2006, 4, 5)

노는 것도 기술이더라구요. 방법을 알아야 노는데 나는 어릴 적부터 자율적으로 놀아 본 적이 없어서 애들 데리고 어떻게 놀아야 될지 진짜 피곤하고 애들을 뭐하며 놀리지 고민이에요. 걱정이죠.

(김수희, 2006, 5, 3)

남한에서는 북한과 달리 자녀의 학습과 배움을 위한 지도도 해야만 하였다. 학습지를 함께 해야 하며, 노래도 단어도 가르쳐줘야 했지만 새터민 부모들도 남한의 언어와 교육에 익숙치 않기

때문에 제대로 역할 할 수 없어서 답답해하였다.

여기는 다 교재를 하잖아. 북한에는 그런 것 없어....(중략)...교재(학습지)를 보면서 내가 따로 경호를 시켜 줄 수가 없어. 내가 모르는 말도 많고. 내가 조금 모르겠어. 난 지도를 하나도 안했어. 집에서 별로 해 준 게 없어.

(김혜진, 2006, 4, 5)

유치원 갔다가 “아빠 꿈 엄마 꿈”하는데. 내가 노래를 모르니까....(중략).... 지금 내가 여기서 뭘 어떻게 배워줘야 되는지도 모르겠으니까. 어릴 때부터 말 배울 때부터 하루10단어 이상 할 때라는데.

(최영이, 2006, 4, 19)

뿐만 아니라 새터민 부모들은 북한과 다른 남한의 교육풍토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역할을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때문에 실수할지도 모르는 점을 답답해 하였다.

저도 한국에 와서 애기를 일단 키워보니까 모르는 점이 역수로 많거든요. 예를 들어가자고 5월5일 어린이날 같은 것도 선물 사서 가방에 보내면 이제 서로 교환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몰랐거든요. 저는 5월 5일 날 쉬는지도 모르고 아를 (어린이집에)보낼려고 하는데...(중략)....저희는 모르잖아요.

(이옥희, 2006, 5, 10)

#### (2) 사교육도 시켜야 된대요.

북한의 유아교육은 공교육이었고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었으나 남한에서는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이 훨씬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아이마다 능력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사교육은 부모에게 양육의 소홀함을 물을 수 있는 제도라고 느끼고 있었고, 또한 경제적인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좌절감을 주는 부분이었다.

북한에서는 정기적인 교육 이거는 누구나 거쳐

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런게 없어요. 11년 의무교육에 유치원 높은 반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원 가면 응당 하는 건데. 근데 요기서는 아니잖아요. 엄마들이 유치원 들어가기 전부터 다 해주고. 우리는 글 읽는 것도 다 비슷비슷하게 전체적인 분위기로 넘어가는데. 요기는 사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들쭉날쭉 다양하잖아요. 겁이 나더라도. 똑같이 배우는 거라면 신경을 안 쓸텐데. 우리 애는 아직 안 배웠는데 같은 6살인데 책은 책을 줄줄 읽는데 우리 애는 뭘 글 잔지도 모르고 앉아있다가 애가 이리다가 못 버티면 내가 너무 신경을 안 쓴 건가.

(김수희, 2006, 6, 20)

북한에서는 애들 교육이 무료다 보니까 별로 신경 쓰고 그런 게 없어. 북한에서는 미리미리 교육시키고 그런 것 없어요.....(중략)... 근데 여기는 내가 돈이 없어 못해. 여기 엄마들처럼 학원을 못 보내잖아.

(김혜진, 2006, 5, 18)

남한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은 북한에서보다 양육의 역할이 확장되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양육방법을 알지 못하는데서 기인하고 있었다. 북한의 취학전 교육의 목적은 일하는 어머니들로 하여금 경제적인 생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유아들을 공산주의적 집단주의 이데올로기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어릴 때부터 유아를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교육기관에 집단적으로 수용하여 모육하는 제도이다(김경숙, 1995). 따라서 북한에서는 사교육이 필요 없으며 유아기 자녀와 함께 놀아야 된다가나, 자녀의 학습을 위해 가정에서 뒷받침해야 하는 별도의 양육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한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사적 양육의 일부로 새터민 부모로 하여금 북한에서보다는 확장된 양육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었다. 더욱이 사교육은 경제적인 여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은 확장된 양육의 역할을 지각하고는 있지

만 경제적 어려움과 남한에서의 적절한 양육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수행하지 못하여 좌절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다름이 주는 혼란

### (1) 말이 달라서 힘들어요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과 북한이 같은 국어를 사용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라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양육과 관련하여 자녀에게 중요한 사람인 교사와의 의사소통시 그리고 유아와의 의사소통 시에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었다. 다른 말투, 많은 영어 표현, 같은 단어라도 다른 화용론적 의미는 원활한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는 때가 많았다. 더욱이 말을 배우는 시기의 유아기 자녀가 부모 자신의 북한식 말투와 어휘를 배우게 될까봐 조심스러워하였고, 모르는 어휘들 때문에 자녀를 가르칠 수 없음에 대해서는 답답해하였다.

아무래도 말투가 ...집에 오면 우리 말투가 그래서 우리 말투를 따르고...(중략)... 애가 거기(어린이집) 가서 애들 말을 못 알아들을 때가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컵을 갖다 놔두라 하면 우리는 고뿌를 거기 갖다 놔라 하니까 애가 우리 말하는 것하고 달라서 그냥 멍하니 있는거라. ...(중략).... 같은 조선말이라도 언어 때문에 많이 힘들어.

(김혜진, 2006, 4, 5)

어린이집에서 말하면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냥 한국말로 말하면 모르겠는데 한국말 사이사이에 미국말이 많이 끼어 있어서 잘 모릅니다.

(이봉규, 2006, 4, 21)

### (2) 내 양육이 잘못됐다고 해요.

새터민 부모들은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남한사람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었다. 남한사람들은 새터민 부모들이 유아기 자녀에게 강요하고, 자녀의 연령에 맞지 않게 어려운 말로 심하

게 훈육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무섭게 한마디만 하면 그냥 잘못 했습니다라고 해요. 팔래미가 아직 어려도 내가 크게 강요하는 편이니까. 근데 선생이 아가 거부감을 가지는 것 같다고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하더라고요.

(이옥희, 2006, 5, 10)

발뺨하고 거짓말치고 그러면 세상 어떻게 살래? 세상이 너 안 받아줘 하면서 큰소리로 막 욕하면 선생은 아한테 그런 소릴 하나고, 아한테 어른한테 야단치는 것처럼 하면 애가 받아들이질 못한다고.

(김수희, 2006, 5, 4)

새터민 부모는 그들의 자녀가 수줍어하고 부모를 무서워하고 부모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반면 남한의 아이들은 자유분방하게 장난치는 아이의 모습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사람들의 지적과 자녀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양육행동이 아이를 아이답게 키우지 못하는 것이 아닌지, 남한 부모들과는 다른 자신의 양육행동에 대해 혼란을 느끼고 있었다.

우리 아이들은 내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러는 게 제 탓 같기도 같고. 우리 집에 교회 모임 같은 걸 하면, 어른들 말하는데 끼어들지 말고 너네들끼리 가서 놀아라 하면 지방에 들어가서 놀아요. 어떨 때 보면 아이들이 아이들 같지 않고 어른들 같아요. 이렇게 눈에 거슬리고 내가 이중인격같이. 지금 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애들한테 자꾸 이렇게 교양을 하는 게 좋은 건지 다른 애들은 막 장난치고 하는데 그런 게 아이 같은 행동일지 모르는데.

(김수희, 2006, 6, 20)

새터민 부모들의 양육의 어려움은 북한과 남한의 '다름'에 기인하고 있었다. 이민자들의 현지적응에 가장 중요한 관건이 언어(김경연, 1995)라는 점에서 볼 때,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과 다른 북한 사투리와 억양으로 인해 타인들과 대화 나누기를 기피하며, 남한사람들이 외래어

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특히 언어라는 것은 연령이 어릴수록 습득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감안할 때, 유아기 자녀가 부모세대의 북한식 언어를 빠르게 습득하게 될까봐, 그리고 자녀들의 언어습득 속도에 발맞춰 남한식의 언어를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되지만 해결방법을 찾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들에게 있어 같은 언어이지만 다른 남한의 언어는 남한사회에서의 적응과 밀접히 관련이 있으며 동시에 자녀양육에도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었다.

또 다른 양육 상의 혼란은 남북한의 양육방법의 다름에서 비롯되었다. 남한에서 유아기 자녀를 위한 바람직한 양육행동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자녀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자녀의 의견을 수용하는 민주적인 양육행동(이현섭 외, 2006)이므로 새터민 부모들이 자녀에게 부모의 주장을 수용하도록 강요하는 성인중심의 훈육과 성인사고 수준에 맞춘 훈육은 남한사람들로부터 지적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이 구체적인 양육방법에 대한 혼란으로 연결된 것은 자기소신과 표현력을 중시하는 남한사회에서 남한 아이들과는 다른 수줍고 자기표현이 없는 그들의 모습 때문이었다.

### 3) 탈북이 주는 아픔

#### (1) 남한사람과 잘 안 만나요

새터민 어머니들은 남한사람들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모임이 거의 없었다. 더욱이 자녀와 같은 또래의 부모와의 만남도 거의 없었다. 이렇듯 남한사람들과의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지 못한 이유로는 내성적인 성격이나 자녀가 아직 어린 이유도 있지만, 자신들을 달리 보는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 큰 요인이었다.

어디 가서 웬만해서는 북에서 왔다고 말을 잘 안 해. 왜냐면 편안하게 대하다가도 그런 것 말하게 되면 다음 번에는 우리를 딱 멀리하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구. 나는 우리가 북에서 왔으니까 뭘 모른다고 그렇게 멀리하지 않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난 병원에 가고 그런 것 아니면 밖에 안 나가. (김혜진, 2006, 4, 5)

저는 밖에 안 나가요.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아직 어린이집에 한 번도 못 가봤어요. 학부모들이랑 접촉도 못해보고. 여기 와서 한 번도 밖에 나가지 않았으니까. (이순영, 2006, 4, 21)

반면 유아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는 경우 이러한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김혜진씨의 경우는 과거 유아교육기관의 원장선생님이 다른 부모들에게 새터민 부모임을 알려서 적극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써 유아교육기관에 참여하기가 수월하였으며 다른 부모들과도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그러나 자녀가 초등학교로 진학하면서는 적극적인 중재자가 부재하여 관계형성이 어렵다고 말하였다.

어린이집에 다닐 때는 원장 선생님하고 사이가 돈독해서 별로 학부모들하고 서먹서먹하고 그런 게 없었어요...(중략)... 모임에 가게 되면 원장선생님이 소개를 막 시켜 주는거라. 북한에서 온 엄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린이집에 가서 좀 하고 그랬거든요. 엄마들한테 눈도장을 찍어 봤어요. 교사가 차라리 소개시켜주고 하니까 좋은데. 학교는 이제 한달 정도 지났으니까, 한 두 번 정도 모이지, 모임엔 좋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나 자체가 좀 그렇더라구. 그래서 지금상태에서는 내가 좀 그래. (김혜진, 2006, 4, 5)

### (2) 북한 사람과도 잘 안 만나요.

새터민 부모들은 자신들과 같은 입장의 새터민 부모들과의 관계형성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새터민 부모들끼리의 만남은 남한 사회 적응에 아무런 이득이 없는 일이며, 서로간의 아픔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

로 만나지 않고 있었다.

이 주변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1년 지나도 우린 안 만납니다. 만나도 소용이 없어요. 만나서 어찌겠습니까. (이봉규, 2006, 4, 21)

이북에서 온 사람들 엄청 많아요. 많은데 제가 안 만나는거죠...(중략)... 저희들은 어느 사람들이든 다 한 가지씩 아픈 사연을 가지고 오거든요 부모를 뵈었다든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옥희, 2006, 5, 10)

### (3) 내 몸도 마음도 고달파요.

새터민 부모들은 건강상의 문제, 이혼, 사람에 대한 불신 그리고 북에 두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을 갖고 있었다. 압록강을 직접 건너온 김혜진씨는 그 당시의 긴장감으로 두통을 늘 호소하였으며 두 번째 인터뷰에서 남한에 와서 남편과 이혼했음을 보고하였다. 최영이씨의 경우도 병원을 자주 다니기 때문에 면접이 취소된 경우가 두 번 있었다. 중국에서 친한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경험한 김수희씨는 타인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을 잃었고, 아버지 없이 자란 이옥희씨는 북한에 병든 어머니와 동생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이혼한 상태예요...(중략)...아무래도 북한사람들 다 아파. 너무 많이 신경을 쓰니까. 여기로 넘어 오면서 긴장되고 하니까 나도 머리가 늘 아파서 병원을 계속 다녀. (김혜진, 2006, 5, 18)

애 아빠가 중국에서 사고를 쳤거든요...(중략)... 싸움이 터지고 안 좋은 소문이 막 퍼졌거든요. 근데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삭 피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그때 임신 막달이라 막 힘들 때고. 그런데 전화하지 말라 도청하겠다 자기한테 피해온다. 그때 상실감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것 밖에 안 되나 하는 배심감이야 하나. 그래서 사람을 잘 안 믿어요.

(김수희, 2006, 6, 20)

저희 어머니는 다 키워놓은 딸을 생이별을 하니  
 까. 여기서 사람 찾는 걸 볼 때마다 부모 생각 많  
 이 하거든요. 특히 제가 딸래미 놓고 키우니까 부  
 모 그리움이나 애착심이라든가 그런게 엄청 들  
 거든요. (이옥희, 2006, 5, 10)

부모의 사회적 관계망은 부모에게 그 사회문  
 화에 맞는 양육행동을 관찰하면서 학습할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한다(Gabarino, 1983). 그러나 본  
 연구의 참여자 중 직장생활을 하는 이정아씨를  
 제외한 새터민 부모들 즉, 전업주부로 있는 새  
 터민 어머니들은 남한사람들이나 북한사람들과  
 도 사회적 관계망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지 않았  
 다. 이것은 특히 자신의 내성적인 성격에 남한  
 사람들의 편견이 더해짐으로써 더욱 어려운 일  
 이었다. 새터민의 적응에 남한사람들의 편견(윤  
 병익, 1997; 이금순, 1997)이 문제가 된다는 것  
 에 대해 독고순(2000)은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무관심과 몰이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  
 다. 따라서 남한사람들과 새터민들은 서로에 대  
 한 선입견을 버리고 상호이해를 증진시킬 필요  
 가 있으며, 이는 남북한 부모들이 모두 함께 하  
 는 프로그램으로 가능하다. 또한 새터민 어머니  
 들은 탈북 하는 과정에서 얻은 심리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탈북주민의 문화적 적응 면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신체화 증상을 더 많이 호  
 소하며(김현와·전명남, 2003), 탈북 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 겪은 심리적 외상이나 북한 내 잔  
 여 가족과 관련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  
 이 크다(조영아·전우택, 2005)는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고 있다.

새터민 부모들의 사회 관계망의 결여와 심리  
 적 어려움은 다시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3. 새로운 양육환경에 적응하기

적응이란 삶을 향상시키고 유지하기 위해 새  
 로운 환경에 적합한 방식으로 자신의 태도나 행  
 동 양식을 조정해 가는 ‘과정’(박성연·김미경·  
 도현심, 2000)이다. 새터민 부모들은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전에 그들이 지녔던 몸에 밴  
 양육신념을 토대로 남한에서 새롭게 터득한 양  
 육신념과 그들만의 계속적인 노력을 더하는 등  
 그들만의 양육행동으로 남한에서의 양육환경에  
 적응하고 있었다.

#### 1) 몸에 밴 신념들

##### (1) 아이들 스스로 키야쥬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 확  
 고했다. 그들은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  
 주는 남한의 부모들과는 달리 자녀가 스스로 일  
 어나게끔 하는 자립을 강조하였다. 즉, 부모의 역  
 할이란 남한 부모들처럼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일일이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잘못된 길  
 로 빠지지 않도록 충고하고 그 외는 자녀가 스스  
 로 하게끔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신념  
 은 부모 자신이 북한에서 자라오면서 그들의 부  
 모로부터 받아온 양육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일단 우리 애는 자기 스스로 하게끔 키웠어요. 아  
 스파트에 넘어져도 나 혼자 일어나라하고. 근데  
 한국 엄마들은 애가 아프거나 넘어지거나 하면  
 잡아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안하거든요. 애들  
 한테는 자립심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기 자립  
 이 돼야만 성인이 되어서도 잘하지 내가 안하면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이러면 커서도 도움이 전  
 혀 안될 것 같아요. 우리 친정엄마는 내가 하고  
 싶은 상태로 풀어놔서 키웠거든요....(중략)....부  
 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충  
 고만 주는 거지. 여기는 애들한테 해줘야 되는 게  
 너무 많고 거기서는 스스로 하게 맡기는 게 많고.  
 틀리죠. 엄청. (이정아, 2006, 5, 2)

여기 엄마들이 먹을 것부터 시작해서 챙겨주고 이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객관적이에요. 항상 나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애가 스스로 하도록 내가 신경을 안 쓰거든요. 세수 했지 하면 애들이 안 해도 했다 하잖아요. 난 그걸 알면서도 그냥 지나가버리거든요.

(김수희, 2006, 5, 3)

(2) 아이들에게 교양교육이 중요해요.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양을 중시하는 예절교육을 매우 중요시 하였다. 특히 부모 말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며 공경하도록 어린 시기부터 강조하였다. 더욱이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예절교육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다른 건 다 빼놓고 예절이라든가 뭐 부모 말 안 듣거나 반항하거나 뭐 이런 것 그런 것 아주 철저히 다잡아 놓죠. (김수희, 2006, 5, 4)

저는 우선 음식밥상에 앉으면 제가 손 딱 들어라 이력카거든요. 물 떠다가 아빠 먼저 주고 니 물 마시라. 어릴 때부터 어느 정도 교양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중략)...애기라도 어른 보면 인사는 해야 된다. 제 교육은 집에서 교양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니까 더 필요하죠. (이옥희, 2006, 5, 10)

(3) 애정표현보다는 매로 다스려요.

새터민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에게 잘한 일에 칭찬과 애정을 표현하기보다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 댓가를 치르게 하는 훈육을 더 강조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언어적인 유형이 지시형에 가까우며, 잘못하였을 때는 신체적 체벌을 하는 등 다소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고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자녀가 부모를 무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세상에 자기 새끼는 다 이쁘죠. 그러나 나는 자기 새끼 이쁘다고 물고 빨면 애가 성장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봐요. 칭찬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

요. 야단 칠 때 니가 뭐 잘못 했고 이럴때 이렇게 하고 이런 거 가르쳐주고요. 저는 때릴 때는 막 때려요. 때리면 가슴 아프거든요. 그래도 매로 다스려야 하지. 이쁘다 하면 나중에 애들이 부모를 무시합니다(이정아, 2006, 4, 19).

조그만 잘못도 말로 때릴 것 같이 심하게 해....(중략)....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텔레비 키고 그러면 니 엄마가 텔레비 키라했나 안키라 했나하면 안 키라 했어요 해. 가만히 있으면 지가 알아서 끄거든. 이것도 니가 잘못된 행동이다. 엄마한테 막 물어보고 꺼야지하면 알았어요 해.

(김혜진, 2006, 4, 5)

본 연구 참여자들인 새터민 부모들은 북한에서 자신들이 양육된 대로 그들의 자녀에게도 자립과 부모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예절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이는 북한 부모들은 윗사람의 말에 불순종하는 것을 가장 나쁜 행동으로 지적하였고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총체적으로 물었을 때 대부분 자녀에게 순종을 강요한다고 한 점(이순형 외, 1999)과 북한의 가정교육은 자녀의 성장을 대부분 자연적 방식에 맡기고 ‘자기가 알아서 하라’는 경향이라는 연구결과(민무숙·안재희, 2001)와 같은 결과이다. 즉, 새터민 부모들과 북한의 부모가 동일한 양육신념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집단주의 가치관의 북한 사회는 질서를 유지하는 통치 방법으로 위계질서를 강력히 고수하면서 이를 가정에서는 가부장주의를 통해 유지시키고 있고(이기춘, 2001) 취업주부나 전업주부나 모두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녀양육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자녀의 순종과 자립을 강조(윤택림·함한희, 2005)하는 사회이다. 양육신념은 그들이 속했던 사회적 환경이나 문화적인 가치관(Okagaki, & Sternberg, 1993)을 반영하게 되며, 어머니들의 양육행동의 질은 대부분 어린 시절 자신의 부모가 보여준 태도나 행동이 내재화된 것(Main,

Kaplan & Cassidy, 1985)이라는 점에서 볼 때, 새터민 부모들이 강조하는 자립과 순종이라는 양육신념은 그들이 성장했던 북한 사회체제와 가치관인 집단주의와 가부장주의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양육신념은 양육행동의 예측요인으로(McGillicuddy-De Lisi, 1980), 자립과 순종을 강조하는 신념이 애정보다는 위계질서를 강조하기 위해 강압적인 훈육행동으로 귀결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새터민 부모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부모로부터 세대 간으로 전이되어 남한에서도 여전히 강조되면서 남한에서의 양육에 적응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 2) 새롭게 형성된 신념들

### (1) 남한에서는 공부기 제일 중요해요

직장생활을 하는 이정아씨와 새터민 아버지들이 남한사회에서 새롭게 터득하여 강조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공부였다. 자녀의 공부 수준이 남한의 다른 또래들과 비슷하다는 것은 남한에 잘 적응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공부가 이후 자본주의 사회에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애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는 전혀 살아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자식 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는 개념이 있거든요.....(중략)...머스때는 일단 어리고 이제부터 여기서(남한) 성장하니까 애한테 해 줄 수 있는 얘기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안하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이정아, 2006, 4, 19)

저의 신랑이 어차피 한국에 와서 보니까 많이 배워야 된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중략)... 여기서는 자격증이 기본이라 하네요. 그리고 어디 대학을 나오면 더 좋고. 그러니까 배워야 된다 무조건 예회는 공부를 시켜야 된다. 저희 신랑은 이게 목적이거든요. (이옥희, 2006, 6, 2)

### (2) 남한에서 살려면 이런 태도들이 중요해요.

새터민 어머니들은 남한을 왕따 또는 성폭행이 빈번한 사회로 보기 때문에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태도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었다. 즉, 성폭행에 대비하기 위해 쌀쌀맞은 여자의 태도가 필요하며 스스로 문제해결책을 결정해야 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현명함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자가 찬바람이 쐬쌔 돌아야 한다. 특히 여기는 성폭행 많다보니까. 그런데서 나는 엄청 교양하고 싶거든요. 티비 보면 성교육을 하는 집도 있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 외가 이것에 손 댈 때는 이것은 잘못 된기다하고.

(이옥희, 2006, 5, 10)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이 조금 지혜로워야 될 것 같아요. 사리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북한처럼 이거다하고 이끌어가 사람이 없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나를 참 힘들게 해요. 나는 결정 낸 것에 따르는 것이 익숙해 있으니까 내가 결정하고 이끌고 갈 수가 없어요.....(중략)... 미영이가 사리 분별력이 정확해야 되고 지혜로와야 되고 결정을 잘 해야 되고. 요기는 끝없이 도전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고 부딪혀야 되니까.

(김수희, 2006, 5, 3)

### (3) 우리 아이는 한국아이예요

자녀를 남한에서 낳은 이정아씨, 이옥희씨, 이순영씨는 자신의 자녀가 완전한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자녀가 한국말을 잘 배우고 있고, 어딜 가도 적응을 잘 하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한국에서 태어난 완전한 한국아이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자녀의 남한사회에서의 적응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즉, 자신은 북한 사람이지만 여기서 출생하여 자라는 그들의 자녀는 한국인이라는 자녀의 정체성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우리 애는 여기서 낳았고 돌 지나서부터 어린이 집에 나갔거든요. 적응을 잘합니다. 어딜 갔다봐도 적응을 잘합니다. 선생님들이 놀랄 정도로요. 회안한 거는 저희 말을 안 써요. 말을 참 이쁘게 배우더라구요. 완전 한국애잖아요. 말 배우는게 완전 한국말을 배웠어요. 애 키우는 데는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정아, 2006, 5, 2)

지금 저희 딸래미는 말하는거나 어차피 크게 자기가 여기서 놓고 자랐으니까 크게 신경 쓰지는 않죠. 완전 한국 사람이니까. (이유희, 2006, 5, 10)

새터민 부모들이 남한에서의 양육과 관련하여 새롭게 터득한 신념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Kohn(1969)에 의하면 부모가 느끼는 환경적인 상황은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이러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과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의 생각을 형성시켜준다고 하였다. 남한사회에서 식당일부터 시작하여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이정아씨와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남편들은 남한 사회를 개인의 개성과 능력을 중요시하는 경쟁적인 사회로 절실히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후 취업의 방편이 되는 공부를 더욱 강조하였다. 반면 직장생활을 하지 않고 있는 전업주부인 어머니들은 주로 TV매체를 통해 왕따 현상과 개방적인 성문화로서 남한사회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태도로 씩씩함, 현명함 등을 강조하고 있었다.

또한 새터민 부모들은 자녀의 출생지에 따라 자녀의 정체성과 남한에서의 적응에 대한 생각을 달리 하고 있었다. 북한에서 자녀를 낳고 탈북한 김혜진씨를 제외한 다른 부모들은 남한에서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었는데, 자녀의 출생지가 남한이므로 한국아이이고 따라서 앞으로의 적응에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다

소 안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자신이 살던 환경을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야 하는 경우가치관이 변화될 수 있으며 커다란 혼란과 변화된 환경에 대한 적응에 어려움(Georgas et al., 1996)을 겪을 수 있는데, 그들의 자녀는 출생지가 남한이므로 명실상부한 한국인이며 새터민 부모 자신들이 겪은 급격한 환경의 변화를 경험하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있었다. 국제적 이주자 부모와 함께 이주한 자녀 혹은 이주 2세대들은 그들의 부모 혹은 제 1세대 어른들 보다 더 잘 적응한다(박모란, 2000)는 사실도 이러한 정체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3) 적응을 위한 노력

#### (1) 어린이집에 의지해요.

모든 새터민 부모들이 양육에 있어서 유아교육기관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의 선생님을 주 상담자로 여겼고, 유아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 그들이 중요시 하는 교양교육과 부모를 대신하여 남한의 놀이와 언어를 접하게 해 줌으로써 자녀의 적응을 도왔다. 뿐만 아니라 자녀가 유아교육기관에서 습득한 남한의 언어와 학습내용을 부모에게 전함으로써 부모의 남한적응에도 도움이 되고 있었다.

우리 애가 담임선생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 담임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봐요.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지 내가 모르는 문제는 선생님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선생님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이정아, 2006, 4, 19)

노는 날이면 놀이터를 모르니까 애들을 데리고 못가. 근데 어린이집에 있다 보니까 캠프도 가고 애들을 참관도 하고 오고 하니까 나보다도 경호가 더 잘 적응해서 갔다 와서 내한테 말해 주는 거라. 엄마 그런데 가니까 수족관이 뭐 어떻고 하면서 경호가 다 가르쳐 주는 거라.

(김혜진, 2006, 4, 5)

저희들도 한국사회 적응하기 힘든데 저희들하고 같이 있으면 제가 북한말 하는 거 배우게 될거고 이래하니까 어린이집 빨리 보내라 하니까 요즘 나온 것 같고. 저는 교양에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어린이 집 보내니까 좀 많이 낫거든요...(중략)... 어린이집 보내니까 인사법도 배우오고 노래도 배우오고. (이옥희, 2006, 5, 10)

(2) 내 나름으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새터민 부모는 자신의 자녀가 남한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남한의 환경을 직접 보고 경험하라는 의미에서 시간이 될 때마다 자녀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였고, 남한에서는 공부가 가장 중요하다는 신념에 따라 항상 자녀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학습과 관련된 상호작용을 하고자 하였다.

교회고 시내고 아무데나 자꾸 데리고 다녀요. 시야 넓어지라고. 눈이 트이라고 좀 뚫뚫해지라고. (최영이, 2006, 4, 19)

알아 들든 못 알아 들든 나는 커서 공부해야 한다.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어떨 땐 수공하는 것 같더라구요. 항상 얘기하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가지고...(중략)... 항상 틈나면 노래로 시작해서 1, 2, 3, 4, 숫자 같은 것 가르쳐 주고. (이정아, 2006, 5, 2)

이옥희씨는 자신의 북한식 언어를 수정하고자 노력하고 있었으며 공부가 중요하다는 신념에 따라 남편의 요구로 방승통신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공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이고자 하였다.

한국말 많이 배울려고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잘 안되거든요. 텔레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남들이 얘기할 때 유심히 들으면서 고칠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말도 그렇고, 엄마가 공부를 하면 딸도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이거거든요. (이옥희, 2006, 5, 10)

이봉규씨와 김혜진씨는 남한의 자녀 양육방법 또는 교육문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많이 하는 것을 그대로 모방하면 남한의 양육방식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고 보았다.

3만원 내고 가벤가 뭔가 하는 것도 합니다. 꼭 필요하지 모릅니다. 우린 뭘지 모르니까네 뭘니까 하니까 뭐라고 하던데..모르겠습니다. 그래 몇 명 합니까. 하나까 10명중에 8명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필요한갑다 해서 우리도 3만원 내겠다 했습니다. 우린 모르니까네. (이봉규, 2006, 4, 21)

새터민 부모들의 자녀 적응문제는 상당부분 유아교육기관이 해결해 주고 있었다. 유아교육기관은 유아기 자녀의 예절교육과 남한사회의 적응을 위한 언어와 교육을 전적으로 맡아 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자녀가 보고 배운 것을 부모에게 전달함으로써 새터민 부모의 남한사회의 적응에도 간접적인 지원이 되고 있었다. 자녀가 다니고 있는 유아교육기관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부모일수록 자녀양육에 더욱 자신감을 가지므로(박영아, 2005), 낯선 사회에서 적응하고자 하는 새터민 부모들에게 유아교육기관은 자녀양육과 자신들의 적응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사회관계망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터민 부모는 새로운 환경에서 자녀양육을 하기 위해 나름으로 터득한 신념에 따라 여러 가지 전략을 시도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녀의 출생지가 남한이든, 북한이든 상관없이 주로 자녀를 남한사회에 잘 적응시키기 위해서였다. 부모에 따라 남한사회의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니기, 공부의 중요성 때문에 학습적인 상호작용하기, 또는 부모가 몸소 공부하는 모습 보여주기과 같이 적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거나 남한사람들이 하는 대로 모방하는 소극적인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새터민의 자녀 양육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로,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얻어진 자료를 크게 3가지 범주, 즉 남한이라는 양육환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양육의 어려움은 어떠하며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과 다른 남한이라는 사회 문화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된 상황의 변화는 새터민 부모의 양육의 목표를 변화시켰다. 즉,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양육의 목표가 생존에 관한 것이었지만, 새로운 환경인 남한에서는 자녀가 안전하고 바람직한 가치관으로 사회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발달적 측면의 목표로 전이되었다.

양육이라는 개념에는 우선 생명을 보존하도록 생리적으로 돌봐주는 것에서부터 학습을 시키고 사회화시키는 것 등 부모가 자녀의 발달을 위해서 베풀어 줄 수 있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다(한국부모교육학회, 1997).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의 양육의 목표 전이는 일차적으로 자녀의 생존을 위한 적절한 환경제공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양육의 목표를 달성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양육의 다른 측면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모의 역할 전이와도 관계있는 것으로 이러한 전이는 부모역할의 만족감과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양육의 목표는 새터민 자녀의 연령과 다소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 참여자인 유아기 자녀가 있는 새터민 부모들은 자신들이 양육되었던 북한 사회의 집단주의 가치관에 따른 순종과 자립을 남한에서도 여전히 강조하면서 동시에 남한사회를 경쟁사회, 북한보다 위계질서가 확고하지 않은 사회 및 자

유와 개방 등으로 성폭행 등이 만연한 사회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적응하기 위해 자녀에게 공부와 부지런함 및 현명함과 같은 태도도 함께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아기를 넘어 8세~18세 사이로 미래의 사회적응에 부모가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의 새터민 자녀에 관련된 홍주은(2003)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예의범절보다는 자녀가 사회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학습에 강조를 두는 쪽으로 유의하게 변화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연령이 높은 자녀들보다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들이 자녀가 남한사회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뿐만 아니라 순종과 같은 예의범절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도 상당부분 관심을 쏟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둘째, 새터민 부모는 남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부가된 양육의 역할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북한에서는 국가가 자녀 양육의 많은 부분을 맡아왔기 때문에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이 비교적 적고 특히 자녀 교육에도 크게 관여하지 않는(한만길, 1997) 반면 남한에서는 유아기 자녀와 놀이도 해야 하고, 사교육을 시켜 다른 또래에 뒤처지지 않게 하는 역할수행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과 다른 언어와 양육방식의 차이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에 대한 실질적인 양육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이 원활하지 않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즉, 남한으로의 이주라는 환경적 변화는 공적 영역의 일부이면서 어머니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던 양육의 역할을 확대시켜 그 책임을 더욱 가중시켰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양육방법은 터득하지 못하여 혼란을 겪는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북한과 다른 남한의 낮은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현상은 유아기 자녀의 안전과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는 위험한 환경이었고 그 속에서 어떻

게 양육해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도 함께 느끼고 있을 뿐 아니라 탈북이 주는 아픔, 즉 소극적인 사회관계망 형성과 신체증상에 대해 호소, 이혼, 북에 남겨둔 가족에 대한 그리움 및 제3국에서의 어려웠던 경험으로 인한 성격의 변화와 같은 부모의 개인적인 문제도 남한에서의 양육에 어려움을 더하는 간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발생한 특별한 생활사건, 예를 들어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개인의 질병이나 정서적인 문제, 이혼 및 이사 등은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다(가족스트레스 연구회, 1994)는 주장처럼, 탈북이라는 매우 특별한 생활사건을 경험한 새터민 부모들은 더 무거운 양육의 책임, 양육에 대한 불안감, 소극적인 사회 관계망 형성 및 개인의 정서적 문제 등에 의해 양육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새터민 부모들이 남한이라는 환경을 이해하는 정도는 남한에서의 직장생활 여부와 다소 관련이 있었다. 즉, 남한사회의 개인주의가 주는 긍정적인 측면인 ‘나’라는 존재감을 느끼는 부모는 부부 중 한사람이라도 남한에서 직장을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이었다.

인간은 누구나 새로운 사회적 상황을 접하게 되면 어느 정도의 불안, 긴장 등을 경험하게 된다. 불안에 대한 정보처리적 접근(Daleiden & Vasey, 1997)을 보면, 불안은 부정적인 정보에 대해서만 주의를 선택적으로 집중하도록 하며, 이것이 계속되면 불안상태가 증폭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제한된 심리적 자원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남한에서 부부 중 한 사람이라도 직장생활을 하지 않으며 사회관계망도 빈약한 새터민 부모들인 경우 북한과 다른 위협한 물리적 환경과 바람직하지 않은 사회적 현상에만 선택적으로

주의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불안감을 가지고 남한사회를 바라보게 되어 적응에 도움이 되는 남한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남한사회에서의 새터민 부모의 직장 생활은 생활수단일 뿐 아니라 조기 적응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남한사회가 새터민 부모들을 새롭게 등장한 복지대상으로서 소외된 계층의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새터민 부모들의 강점을 살려 남한사회에서 스스로 주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의 직업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새터민 부모의 남한에서의 양육에 적응하는 것을 살펴보면, 그들의 몸에 밴 양육신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서 요구되는 양육신념과 행동을 새롭게 터득하면서 나뉘므로 그것을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인간의 경험은 연속성 안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은 이전의 경험을 단절시킨 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경험에서 다시 시작되는 것(독고순, 2000)이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들의 남한에서의 양육에 대한 적응은 어릴 때부터 체험해온 문화를 버리고 남한사회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동화적 적응이 아니므로 최경환(2002)의 주장처럼 공동체 의식의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것은 둘을 하나로 만드는 작업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둘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이며(이수희, 2004), 이는 곧 문화들 간의 관계에서 각자의 정체성을 인정하여 보편적인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Taylor, 1998)이기도 하다. 따라서 새터민 부모와 남한부모의 차이점은 사회문화 또는 인간사의 다양성 측면에서 이를 수용하고 공통점은 한민족이라는 당위성으로 귀결 짓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다섯째, 새터민 부모들의 과거의 경험과 문화

적 습관 그리고 현재 그들이 속한 사회문화의 생소함에서 기인된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에 사회 관계망 형성이 주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새터민들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새터민들이 남한에서 새롭게 사회 관계망을 형성함으로써 남한사회에 대한 정보 입수, 격의 없는 대화 및 마음의 위안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것이 이들의 남한 생활의 적응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윤인진, 2005; 장혜경·김영관, 2000). 또한 사회 관계망 내의 구성원들로부터 그 사회문화에 맞는 양육행동을 관찰하면서 후천적으로 양육행동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받기(Gabarino, 1983) 때문에, 특히 유아기 자녀를 둔 양육경험이 많지 않은 새터민 부모들에게는 사회관계망이 유의미한 사회적, 교육적 자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관계망의 방향성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관계망 형성 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일방적인 것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것이어야 관계에 대한 만족과 심리적 건강을 도모(이수희, 2004)할 수 있다. 연구 참여자인 김혜진씨의 경우는 유아교육기관 원장이 새터민 부모인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남한부모들에게 소개하고 연결해 주었고 이에 김혜진씨는 유아교육기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양방향적인 관계 형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이 긍정적인 사회 관계망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으며, 작은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들에게 유아교육기관은 가장 접촉이 용이한 사회관계망이 될 수 있다. 즉, 유아교육기관은 교사와 새터민 부모, 남한의 부모가 자녀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관계형성을 할 수 있는 사회적 공동체이다. 앞으로 유아교육기관은 새터민 부모를 비롯하여

사회적 자원이 빈곤한 부모들을 위한 중추적인 사회 관계망으로서 그리고 생활공동체로서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새터민 부모의 남한이라는 새로운 양육환경에서의 경험과 적응에 관한 본 연구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노력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 부모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녀를 남한에서 낳아 양육하고 있는 경우였다. 최근 가족동반 탈북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이 후의 연구에서는 북한에서 부모와 함께 탈북 한 유아기 자녀의 양육 경험을 연구하여 자녀의 출생지에 따른 양육태도와 실제의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소수의 새터민 부모의 양육경험에 대하여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수를 대상으로 양육 관련 검사를 다양하게 실시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다면 새터민 부모의 자녀 양육에 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새터민 부모의 양육행동을 부모의 개인적 요인 측면에서 보다는 거시체계인 사회적 환경과 상황의 변화 속에서 부모역할의 전이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는 다른 가치관과 행동양식을 갖고 있는 새터민 부모들을 이해하고 공동체 형성에 필요한 토대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 가족스트레스 연구회(1994). **엄마의 스트레스** 서울 : 창지사.  
 김경숙(1995). 남·북한 취학전 교육에 관한 비교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연(1995). 호주 한국인 이민자가족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문화-생태적 설명. **부산대 사회복지연구** 5(1), 399-416.
- 김수영 · 김향자 · 이현옥 · 허선자(1996). **유아의 사회성 발달**. 서울 : 학지사.
- 김영희(2005). 북한이탈주민가족 부부관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학-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워크샵**, 28-38.
- 김현와 · 전명남(2003). MMPI에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개인차 특성. **통일연구**, 7(2), 129-160.
- 길은배(2003). **북한이탈 청소년의 남한사회 적응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서울 : 한국청소년개발원.
- 독고순(2000). 비교문화적 관점에서의 탈북주민 적응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모란(2002). 탈북아동의 남한사회 적응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 · 김미경 · 도현심(2000). 연변조선족 어머니의 문화집념 및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적응간의 관계. **대한가정학지**, 38(12), 159-175.
- 박영아(200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영유아교육연구**, 8, 97-113.
- 박해연(2003). 양육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및 정서적 표현행동의 관계.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정(1998).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사례연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세계일보(2006). <http://www.segye.com/Service5/ShellView.asp?TreeID=1510&PCode=0007&DataID=200609041205000050>에서 2006년 9월4일 인출.
- 오정현(2005). 자녀의 학교급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성취압력에 관한 연구 : 양육신념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기영(2000). 남북한 사회통합과 재외동포의 역할. **통일문제연구**, 12(1), 5-14
- 이기춘(2001). **통일에 앞서 보는 북한의 가정생활문화**.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이금순(1997). **탈북자의 사회적응 대책 및 그 문제점**. 서울 : 통일연구원.
- 이금순(2003).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 이수희(2004). 북한이주민의 남한사회정착에 관한 연구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순형 · 이기춘 · 이기영 · 이은영 · 김대년 · 박영숙 · 최연실(1999). 북한의 아동 양육실태 및 관련 변수. **아동학회지**, 20(4), 43-59.
- 이현섭 · 고인숙 · 김영희(2006). **부모교육**. 서울 : 형설출판사.
- 윤병익(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북한이탈주민 한국사회 적응에 관한 정책세미나**. 서울 : 남북사회문화연구소.
- 윤인진(2005).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사회적응과 성역할 변화.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협의회 워크샵**, 1-27.
- 윤택림 · 함한희(2005). 남북한 여성 생활문화의 이해 : 집안일과 육아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7(2), 3-32.
- 장혜경 · 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240(13).
- 조영아 · 전우택(2005). 탈북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10(1), 17-35.
- 최경환(2002).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 변화연구. **공안연구**, 14(3), 81-101.
- 최병근(2003). 8월의 크리스마스 : 그 익숙한 공간의 낯설음. **영화연구**, 22, 343-363.
- 한국부모교육학회(1997). **부모교육학**. 서울 : 교육과학사.
-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서울 : 교육과학사
- 한성열(2000). **남북한의 심리적 통합**. 한국심리학회 춘계 심포지엄.
- 홍주은(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통일부(2004). **통일백서**. 서울 : 통일부
- Bigelow, B. J., Tesson, G., & Lewko, J. H. (1996). *Learning the rules; The anatomy of children's*

- relationships.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ronfenbrenner, U. (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s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 psychology*, 22, 723-742.
- Gabarino, J. (1983). *Social support networks : RX for the helping professionals, social support networks*. New York : Addine Publishing Co.
- Kanter, R. M. (1977). *Work and family in the United States : A critical review and agenda for research and policy*.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Kostelnik, M. J., Laura, C. S., Whiren, A. P., & Soderman, A. K. (1998).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3rd ed). New York : Delmar Publishers.
- LeVine, R. A. (1988). Human parental care : Universal goals, cultural strategies, Individual behavior. In W Damon(Series Ed) & R. A. Levine, P. M. Miller, & M.M. West(Vol,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parental behavior in diverse societies*(Vol.40, pp.3-11). San Francisco, CA : Jossey Bass.
- Main, M., Kaplan, N., & Cassidy, J. (1985). Security in infancy, childhood, and adulthood : A move to the level of representation. In I. Bretherton & E. Waters(Eds.), *Growing points of attachment theory and research*(pp.123-135).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0(1-2, Serial No.209).
- Marshall, C. (1987). *Report to the Vanderbilt policy education Committee*. Nashville, TN : Vanderbilt University.
- McGillicuddy-De Lisi, A. V. (1980). The role of parental beliefs in the family as a system of mutual influences. *Family Relations*, 29, 317-323.
- Meléndez, L. (2005). Parental beliefs and practices around early self-regulation : The impact of culture and immigration. *Infants & Young children*, 18(2), 136-146.
- Spradly J. P. (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이희봉 역). 서울 : 대한교과서주식회사(원저 1980년 출판).
- Taylor, C. (1998). *현대사회와 인권*(한상진 편). 서울 : 나남출판.
- Troyna, B. (1991). Children, 'race' and racism : The limitations of research and policy.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Studies*, 39(4), 425-436.
- Tunstall, D. F. (1994). Social competence needs in young children : What the research says. *Association for Childhood Education International Study Conference*(New Orleans, LA, March 30-April 2).
- Ogbu, J. U. (1981). Origins of human competence : A cultural-ecological perspective. *Child Development*, 52(2), 413-429.
- Okagaki, L & Sternberg, 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94, 35-53.

2006년 10월 30일 투고 : 2007년 1월 13일 채택